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
Korea Association of Smart Home

문서번호 : KASH-경기-16-1008
2016년 11월 30일

제 목 : 제11차 스마트홈리더스포럼 조찬간담회 결과

1. 회의일시 : 2016. 11. 30(수) 07:30~09:00

2. 회의장소 : 노보텔엠베서더 강남 프로방스홀

3. 참 석 자 : 위원 22명(발표/배석 포함 총 28명)
- o 협회 :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서병삼 회장 포함 총 7명
- o IoT/가전 : 삼성전자 도영수 전무, 구성기 상무, 김민경 상무, LG전자 심종훈 수석, 삼성SDS 김재필 상무, LGU+ 김용식 팀장
- o 홈솔루션 : 케어게이트 윤기권 대표, 경동원 이재영 상무, 코맥스 노정환 상무, 현대통신 김기석 부장, 그립 정연규 대표, 류재호 CTO, 디지엔스 우인구 대표, 브리드코퍼레이션 유시준 대표
- o 학/연 : 아주대학교 조위덕 교수, 전자부품연구원 윤명현 본부장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정구 단장, 중앙대학교 김성조 교수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기영 PD, 순천향대학교 김학용 교수(발표),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(발표)

4. 회의결과

o 사물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(순천향대학교 김학용 교수)_<발표자료 별첨 참고>
-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
  >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됨에 따라 디바이스를 통한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사용자 패턴분석을 통한 고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
  >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고 고객을 만족시켜 기존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
- 사물인터넷에서 중요한 것은 “무엇, 어떻게”가 아니라 “왜 연결 해야 하느냐” 로써 소비자 입장해서 고민하여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

o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홈 구현 전략(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)_<발표자료 별첨 참고>
-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한 컴퓨팅 파워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, 머신러닝 등의 기법들과 결합되어 인공지능 산업은 급성장 하고 있음
- 아마존이 KIVA Systems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무인으로 물류를 관리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IoT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음
- 글로벌 기업에서 인공지능산업을 확대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는 스마트홈에서도 적용되고 있음(네스트 온도조절기, 아마존 에코 등)
- 향후 스마트홈 및 사물인터넷 시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인지능력을 갖춘 IoT 기술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o OCF Forum Korea(OCFK) 추진 현황(KASH 최상만 본부장)_<발표자료 별첨 참고>

- 16.10 OCF와 Allseen Alliance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IoT 오픈소스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OCF표준을 국내기업에 적용 및 확산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시급
- 관련하여 OCF Forum Korea 창립 준비를 위하여 KASH, 삼성전자, ETRI 등이 참여한 실무자 회의(4회) 및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(16.10.6)하고 포럼역할 및 사업 추진내용 협의를 위한 OCF와의 비즈니스 위원장 미팅(16.11.18) 추진
- OCF Forum Korea 조직은 사무국을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로 하고 하위에 기술위원회, 인증지원위원회, 비즈니스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/운영 예정
  > 기술위원회 : IoT융합분야별 신규표준 개발(표준/오픈소스 WG)
  > 인증지원위원회 : 시험/인증 기술지원, 교육 등(시험인증/상호운용성 WG)
  > 비즈니스위원회 : 교육프로그램/교재개발 및 회원사 유치 등 (교육, 홍보/마케팅, BM WG)
- 향후일정 : `17년 1월 중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1월말 경 창립총회 개최 (`17년 2월 중으로 OCF와 협력 MoU 체결)

o 총평 : 향후 개발되는 스마트홈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